

“필요한분 가져 가세요”...구례 무료 나눔 ‘나누고 가게’ 개소



구례군은 돌봄 이웃이 기부 물품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나누고 가게’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나누고 가게’는 구례군 산동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가 월 3만 원 상당

의 물품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무료 나눔 가게다. 산동면사무소 인근의 ‘나누고 가게’는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한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8일 문을 열었으며, 다음 달 3일부터 운영에

다음달 3일부터 운영...월 3만원 범위 내 자유 이용
김순호 구례군수 “운조루 ‘타인능해’ 정신 되살릴 것”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 물품인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은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을 받아 채워 놓고, 가게는 협업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후원문은 산동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수·금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다.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지만, 기부가 이어지면 연장 운영도 가능하다. 구례군은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신 타인능해 나누고 가게’라는 이름으로 공모해 지난 3월 총사업비 1200만 원을 확보했다. ‘타인능해(他人能解)’는

조선 시대 양반가옥인 구례 운조루 뒤에 새겨진 문구로 ‘타인도 열게 하여 주위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쌀 두 가마니 반이 들어가는 나무 독에 쌀을 채워놓고 흉년이 들어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때 가져가라는 선행으로 가진 자의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타인능해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신 타인능해 나누고 가게’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개소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이우엽 산동면재경향

우회장 등이 참석해 기부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김순호 군수는 축사를 통해 “타인능해 정신을 다시 되살려 함께 나누는 행복 기부문화가 산동면에서 시발점이 되어 각지에 퍼지기를 바란다”며 “군차원의 다양한 기부 확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만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산동면 나누고 가게가 나눔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오랫동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독지가의 후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이와는 별도로 오는 5월 구례읍에서 나눔의 가게를 개소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주 노인회관 신축 개관...“노후 걱정 없는 100세 도시”

지하 1층·지상 4층...일자리·취업·경로당지원센터 등
소득 보장-사회 참여-체육활동-경로 프로그램 운영

20만 광주 어르신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노인회관 신축이 마무리돼 ‘노후 걱정 없는 100세 도시 광주’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8일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옆 노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오병채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남구 서동의 기존 회관이 1981년 건립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공간 부족, 교통 편의성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다. 시비 74억 원이 투입됐고,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문화·상업의 중심지인 상무시민공원 인근에 들어섰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연면적 3081

m² 규모로 기존 회관에 비해 2배 이상 확장됐고, 시설도 한층 현대화됐다. 노인회 광주시연합회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고령 친화도시를 본격 조성 중인 시 행정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실버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리스타 교육장을 1층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1300여개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2층에는 야외 게이트볼장을 마련했고, 그라운드 골프, 한궁, 바둑, 배드민턴 등 각종 체육프로그램과 함께 해마다 각계 저명인사들의 초청 강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3월부터 11월까지의 노인 지도자대학도 운영된다. 최윤희기자



이 시장은 이날 노인회 광주시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오병채 연합회장은 “오랜 숙원이던 노인회관 개관식을 하게 돼 눈물이 날 정도로 감개무량하다”며 “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 없이 당당하고 기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인회관을 비롯해 서부권 노인복지시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함평군보건소, ‘정신건강·치매관리사업’ 업무협약 정신질환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위한 연계 나서

함평군보건소(소장 정명희)는 최근 함평군보건소에서 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대표 심문식), 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센터장 오철수)와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 인식개선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함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는 협약기관과 정신질환 또는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자 의뢰, 치매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및 교육지원, 재난 및 코로나우울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우울 척도 검사 실시 협조 등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상호간의 보유자원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건강과 치매관리 등 업무 추진의 공공성 강화가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